



결정장애 소비자들을 위한
쇼핑 깨나 해본 셀럽들의 본격 쇼핑 참견 토크쇼!
〈쇼핑의 참견〉



쇼핑의
참견

한채영 Boutique

BOUTIQUE



KBS W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방송 사정남 한채영 매장 매니저 홍현희 매장 도우미 고우나 리원원 장역문

KBS N magazine

VOL.36 MARCH. 2019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인 박정미
발행일 2019. 3. 1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운재, 손영주
제작·디자인 DNC www.thednc.co.kr



www.KBSN.co.kr



인스타그램에서
KBS N을 만나보세요!

04
N focus
선녀보살과 아기동자의 꿀잼 60분
〈무엇이든 물어보살〉
현명한 쇼핑의 나침반 〈쇼핑의 참견〉

09
Special 1
바람난 남편이 뽀뽀하고 기가 막혀!
〈코인 법률방2〉

10
Special 2
숫자로 만나보는
〈연애의 참견2〉, 〈차트를 달리는 남자〉

12
Program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14
Sports
KBS N 강성철, 이항 아나운서가 전하는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동행기

16
Interview
KBS N 봉준근 해설위원 인터뷰

18
Report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다!
2019 KBO 리그에서 달라지는 것은?

20
Inside
리얼 뷰티를 팝니다! 〈한채영 부티크〉

21
N news
2019 KBS·KBS N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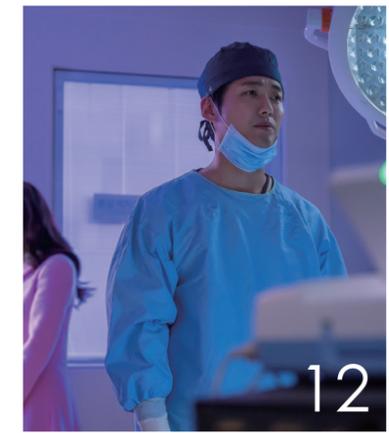
22
Notice
KBS N SNS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Cover Story
결정장애 소비자들을 위한
쇼핑 깨나 해본 셀럽들의
본격 쇼핑 참견 토크쇼!
〈쇼핑의 참견〉



06



12



16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

이수근



465세 핑크빛 러블리
선녀보살

색동저고리에
바가지가발을 장착한
2세 아기동자

선녀보살과 아기동자의 꿀잼 60분 〈무엇이든 물어보살〉 답답했던 마음속 고민이 있다면 드루와~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5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전파를 탔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선녀보살 서장훈과 아기동자 이수근이 합심해 일반인들의 고민거리를 신통방통하게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술한 방송을 통해 합을 맞춰온 두 사람의 케미가 꿀잼을 선사한다. 2019년 KBS Joy 예능을 문을 활짝 연 서장훈×이수근의 폭소만발 상담 현장 속으로!



ⓂⓂ
〈무엇이든 물어보살〉
KBS Joy 매주(월) 밤 9시 50분 방송

지금까지 이런
고민상담소는 없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두 가지가 없다. 대부분의 상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뻘한 조언'과 '눈물바다'가 그것이다. 대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뭘 좀 아는 오빠들의 '진짜 솔루션'과 '감동, 그 이상의 재미'가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믿고 보는 2MC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절친 케미를 선보이고 있는 서장훈, 이수근! 독보적인 능청미(美)를 바탕으로 '고민 맞추기' 적중률 100%에 도전하는 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폭소를 멈출 수 없다. B급 감성을 자극하는 설정 또한 눈길을 끈다. 465세 핑크빛 러블리 선녀보살로 변신한 서장훈과 색동저고리에 바가지 가발을 장착한 2세 아기동자 이수근은 보기만 해도 빵 터지는 웃음 폭탄을 투척한다. 2회에서는 첫 방송 때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분장을 선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이밖에 이들이 모시고 있는 호동신(神) 그림 족자와 특급 솔루션이 담길 부적인 개성만점 콘셉트의 화룡점정을 보여준다.

소름 끼치는 짝기 신공,
백프로 적중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진로, 이성, 학업 등 장르 불문의 고민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찾아온다. 선녀보살과 아기동자는 상담자가 무슨 고민으로 찾아왔는지 오직 '축'으로만 맞힌다. 손님 눈빛만 보고도 짝사랑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을 알아내는가 하면, 신들린 축을 발휘해 오늘이 손님의 생일이라는 것까지 알아낸다. 두 보살의 축이 어긋나면 특유의 '우기기'와 특급 '팀워크'로 분위기를 무마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재미 요소다. 두 콤비의 막강 케미와 살신성인 예능감이 빛을 발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웃다 말고 끝나는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장훈은 '인싸'가 되고 싶다는 개그맨 후배에게 다년간 쌓아온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뽀족 깊이 박히는 조언을 건네고, 이수근은 한 고민남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진심어린 조언을 해준다. 여기에 방심하면 치고 들어오는 선녀보살과 아기동자의 돌발 개그는 걱정거리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투척, 본방 사수 욕구를 한껏 높이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KBS Joy에서 3월에 정규 편성될 예정이다.

현명한 쇼핑의 나침반
〈쇼핑의 참견〉

‘정보’와 ‘참견’의 콜라보, 쇼핑 참견 토크쇼

오는 3월 14일, KBS Joy 〈쇼핑의 참견〉이 새롭게 출범한다. 선택장애와 현명한 쇼핑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쇼핑의 나침반이 되어 줄 본격 쇼핑 참견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상민, 민경훈, 송해나, 광희, 지숙 등 쇼핑 코디 5MC들이 의뢰인들을 위해 아이템 감별과 디테일한 리뷰까지 더해 현명한 쇼핑의 참견에 나설 예정이다.



선택장애 쇼핑은 그만! 쇼핑 고민 해결 코디 출동~

‘A사 운동화를 신을까? B사 운동화를 살까?’ ‘일본 여행에서 꼭 사와야 할 쇼핑리스트는 뭘까?’

세상에 사야 할 물건은 많고, 핫한 아이템은 검색만 해도 주르륵 넘쳐난다. 하지만 내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품에는 선뜻 ‘결제’ 버튼을 누르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듯 남자친구는 칼 같이 자를 수 있어도 이 봄에 필요한 트렌치코트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다면, 쇼핑 코디에게 SOS를 청해보자! 쇼핑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이 땅의 수많은 고민러들을 위해 KBS Joy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쇼핑의 참견〉이 오는 3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

“오늘도 저희 Joy 쇼핑물을 이용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컬러풀한 컨테이너 박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던 마네킹들이 쇼핑물 영업을 끝났다는 멘트와 함께 마법에서 깨어난 듯 살아 움직인다. 이들은 바로 의뢰인들의 쇼핑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5MC. 쇼핑의 A to Z를 마스터한 소비 전문가 이상민, 예능 신인에서 이제는 프로 쇼핑 참견러로 거듭난 민경훈, 패션스타이자 쇼핑 덕후인 광희, 30대 여성들의 쇼핑 심리를 대변할 송해나, 1529 세대의 쇼핑 ‘겜성’을 담당할 대표 금순 연예인 지숙이 MC로 나섰다.





요즘 대세 핫 아이템!
A와 B 제품, 둘 중 어떤
걸 사든 게 좋을까요?

A 제품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데,
B 제품도 외양은 물론
성능도 비슷하네요.



작은 것부터 경험해야
좋은 것을 고마워하고
소중히 다룰 수 있다.



직접 먹어보고 입어보고 체험해보는 코디들의 생생 리뷰

“딩~동!” 벨소리와 함께 스튜디오에 택배 박스가 배달되자 모두들 궁금한 눈빛을 빛낸다. 박스 안에는 의뢰인의 쇼핑 고민 사연이 들어 있었다.

“요즘 대세 핫 아이템! A와 B 제품, 둘 중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상자를 받아 온 민경훈이 사연을 소개하자 패널들은 저마다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후 준비된 제품을 꺼내 비교하기 시작한다. “A 제품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데요, B 제품도 외양은 물론 성능도 비슷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경험을 되살려 제품의 특징을 짚어내는 송해나의 안목을 비롯해 쇼핑 코디들은 제품의 외양부터 기능까지 꼼꼼히 비교하고 체험까지 하며 리뷰를 이어간다.

“3사의 제품을 비교해봤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성비 아닐까요?” 쇼핑 코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민경훈의 포인트 지적에 이어 “작은 것부터 경험해야 좋은 것을 고마워하고 소중히 다룰 수 있다”는 이상민의 진지한 조언이 신뢰감을 더해준다.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B제품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고민 의뢰인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공감 코디 광희의 진단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품 정보를 시시콜콜 집어주는 지숙의 합리적 쇼핑 꿀팁도 큰 도움이 된다.

“쇼핑에 대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쇼핑을 끝나고 또 상담해 드릴게요!” 사연을 보내달라는 당부를 남긴 MC들은 쇼핑물이 오픈하자 다시 마네킹으로 돌아갔다.

공감지수 백배 상승, 검색을 부르는 쇼핑의 참견!

이처럼 <쇼핑의 참견>에서 리뷰하고 참견해주는 상품들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요즘 핫한 주방 필수 아이템부터 해외여행 필수 쇼핑 리스트, 여기에 결혼 인사 선물이며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가전제품, 또는 절대 놓쳐선 안 될 시즌 오프 할인템까지 다양한 의뢰들이 줄을 잇는다. 이런 의뢰에 쇼핑 코디들이 리뷰와 정보는 물론, 싸게 사는 방법과 합리적인 쇼핑 방법, 사연자의 공감 포인트도 함께 살리며 세상의 모든 아이템을 요약 정리해주는 알짜 노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듯하다.

“시청자들이 정신차려보니 방송에 나오는 물건을 다 검색해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PD의 바람처럼 <쇼핑의 참견>은 친구나 가족처럼 속 시원한 ‘참견’ 썰과 함께 유용한 정보까지 전달해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웃음, 정보, 공감까지 아우르며 안방극장에 다채롭고 풍성한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쇼핑의 참견>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버림 받은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 〈코인 법률방2〉 바람난 남편이 뻔뻔하고 기가 막혀!



단돈 500원의 수입료로 시민들에게 명쾌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2>의 사연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지난 2월 27일 방송된 역대급 사연에 네티즌들이 또 한 번 분노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부모가 된 의뢰인의 사연 때문이었다.



일동 경악케 한 의뢰인 사연에 네티즌 분노

<코인 법률방2> 5회에는 젊은 여성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방문해 고민을 털어냈다. 의뢰인은 16살 때 동급생이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고는 “네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다. 그런가 하면 임신 중인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보라,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MC는 물론 변호사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더해진 순간이다.

남자친구 없이 홀로 출산을 한 의뢰인. 남자친구의 원룸에서 6~7개월을 함께 살았지만 그의 외도와 폭력은 계속됐다. 동물학대도 있었다. 세 살 된 아이에게 유대감을 길러주고 싶어 의뢰인이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아무데나 배변한다고 때리고, 사료와 물에 고춧가루를 풀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만행에 방송 이후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 A 갈라서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아기와 본인을 위해서요.
- B 정말 천벌 받을 짓만 했네요. 말 못하는 강아지는 무슨 죄인가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아기와 본인을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위험한 환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응원합니다!
- C 어린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피해 보상 당연히 받아야죠.

남편의 잇따른 폭력과 학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비, 나체 사진 요구 및 폭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혼인관계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6~7개월 동거를 한 것을 사실혼이라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
〈쇼핑의 참견〉
KBS Joy 매주(목) 밤 9시 50분 방송

⏮️
〈코인 법률방2〉
KBS Joy 매주(수) 밤 9시 50분 방송

KBS Joy 예능의 든든한 쌍두마차 숫자로 만나보는 〈연애의 참견2〉, 〈차트를 달리는 남자〉

2019년도 KBS Joy 예능 프로그램이 화려한 라인업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 2~3년째 KBS Joy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투톱'이 있다. 매회 화제성을 몰고 있는 〈연애의 참견2〉과 어느덧 방송 120회를 훌쩍 넘긴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그 주인공들이다. KBS Joy 예능 전성시대를 든든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두 프로그램의 별별 기록들을 숫자로 소개해본다.



2ROUND

작년 1월 13일 첫 방송된 〈연애의 참견〉은 온 세상이 연애의 설렘을 말할 때 자신 있게 이별을 권하며, 연애에 지친 2030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인기에 힘입어 〈연애의 참견〉은 작년 8월 시즌2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더 리얼하고 더욱 독해진 이별진단 2ROUND 〈연애의 참견2〉는 연일 화제를 낳으며 KBS Joy 채널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100%

사랑에 속얇이 하는 이들에게 이별을 권하는 〈연애의 참견2〉 5MC이지만, 누군가는 폭풍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일희일비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촌철살인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기도 한다. 공감 100%의 짜릿한 토크는 이제 〈연애의 참견2〉의 매력이 되었다. 하나의 사연에 대해서도 제각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5MC의 다양한 참견법이 시청자들의 생각을 빈틈없이 대변하며 〈연애의 참견2〉만의 특별한 재미로 자리 잡은 것이다.



60,000회

〈연애의 참견2〉에 소개된 사연 중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재생 횟수를 기록한 사연은 '3년간 같은 이름의 두 여자와 상상초월 양다리 행각' 편으로, 재생 횟수만 6만 회를 훌쩍 넘겼다. 8년 사귀 남친이 3년째 양다리 중이었다는 사실을 안 고민녀의 사연으로, 심지어 양다리녀의 이름이 자신과 같았고 커플링마저 같다고 전했다. 5MC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패닉에 빠뜨린 '역대급 사연'은 아직까지 높은 재생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
〈연애의 참견2〉
KBS Joy 매주(화) 밤 10시 50분 방송



122회

지난 3월 9일자로 〈차트를 달리는 남자〉(이하 '차달남')가 122회를 맞았다. 2016년 7월 첫 방송된 신개념 아이돌 랭크쇼 〈차트를 달리는 소녀〉는 〈차달남〉의 전신으로, 기존 MC 이상민에 권혁수가 합류하면서 전 세계 별별 랭킹을 소개하는 지금과 같은 〈차달남〉이 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방송인 조우종이 MC에 낙점되면서 이상민과 환상적인 브로맨스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Top3

〈차달남〉은 매주 1% 내외의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역올한 의료사고(64회, 1.53%),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96회, 1.387%), 몰락한 스포츠 스타(93회, 1.293%) 편은 1.5%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며 2018년 KBS Joy 채널 최고 시청률 Top3 역시 모두 〈차달남〉이 차지한 바 있다. 토요일 예능을 책임지는 KBS N의 대표 예능 〈차달남〉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본다.

1,500개

기상천외하고 흥미진진한 전 세계 별별 사건을 끝까지 파고드는 랭크쇼 〈차달남〉에서는 매회 1위부터 12위까지의 랭킹을 소개한다. 이렇게 전 파를 탄 랭킹 수만 어림잡아 1,500여 개에 달한다.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고 매회 화제성 있는 랭킹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터. 이에 제작진들은 적합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해외 토픽을 매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차달남〉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펼쳐질 〈차달남〉의 흥미로운 랭킹에도 귀 기울여보자.

⏮️
〈차트를 달리는 남자〉
KBS Joy 매주(토) 오후 2시 30분 방송



신개념 감옥×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기대작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천재 외과 의사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후 펼쳐지는 신개념 감옥×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배우들의 열연에 밀도 높은 스토리가 결합, 웰메이드 장르를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숨 막히는 긴장감과 팽팽한 기 싸움

오는 3월 20일 첫 방송 예정인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의료사고에 억울하게 휘말린 의사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남궁민은 태강대학 병원 응급의학센터 에이스로 출중한 실력과 인간적 매력을 겸비했지만, 병원 이사장의 행패로 의료사고를 내고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뒤 병원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나이제 역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남궁민의 데뷔 이후 첫 메디컬 드라마로, 리허설에서 실제 간호사와 함께 수술도구를 건네받는 합을 맞춰 보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디테일한 준비와 열정으로 세트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는 후문이다.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남궁민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닥터 프리즈너〉

KBS Drama 매주(목) 오후 1시 20분,
매주(금) 새벽 0시 30분 방송

인기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격이 다른 악역을 연기한 김병철은 교도소 의료과장 선민식으로 변신한다. '교도소의 왕'으로 군림하는 선민식은 교도소에 모여든 VIP들의 편의를 봐주며 부와 권력을 쌓아올린 인물로, 나이제와 대립각을 세우며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걸그룹 헬로비너스의 나라는 동생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정신과 자원봉사를 지원해 교도소에 들어온 의사 한소금 역을 맡았다. 나이제와 의료과장 선민식의 치열한 자리다툼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녀가 어떤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진출처 : KBS 2TV 〈닥터 프리즈너〉 제작사 지담



특급 주·조연 합류로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 기대

특급 라인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현성과 강신일은 각각 '스타 검사'와 '조폭 보스'라는 상반된 역할을 맡아 얽히고설킨 그물망 같은 커넥션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도소 안의 어두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장현성이 맡은 중앙지검 형사부장 정익식 역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뒤 판사가 아닌 검사를 지원, '서초동 휘발유'라고 불릴 만큼 화끈한 수사로 조폭과 반부패 척결에 앞장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스타 검사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나이제의 뒤를 쫓는 인물로 장현성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탄탄한 연기가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온화한 성품을 지닌 캐릭터를 도맡아온 강신일은 이번 작품에서 조직 폭력배 보스로 분해 극과 극 반전 변신을 예고한다. 그가 연기하는 상춘파 보스 김상춘은 온갖 범죄 연루돼 무기징역을 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요주의 수감자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검찰 총장급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교도소 내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극의 긴장감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각각 〈스카이 캐슬〉, 〈남자친구〉에서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 최원영·김정난과 박성근이 합류하여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교도소의 왕좌를 두고 심장 쫓겨난 긴장감을 선사할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KBS drama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0분, 매주 금요일 새벽 0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2019 KBO 리그를 미리 본다! KBS N 강성철, 이항 아나운서가 전하는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동행기

KBS N 강성철, 이항 아나운서가 올해 KBS N의 식구가 된 봉중근 해설위원과 함께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투싼, 피닉스에서 있었던 NC, kt, 키움 등 3개 구단의 스프링캠프 현장에 동행했다. 프로야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캠프를 열심히 취재하고 돌아온 두 아나운서를 만나보았다.



지난 2월 미국 애리조나로 스프링캠프 취재를 다녀오셨다고요!

강성철 올해로 4년 연속 미국 애리조나 투싼으로 스프링캠프 취재를 다녀왔어요. 4년째여서 그런지 시차적응도 금방 했어요. 스프링캠프를 다녀오니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항 저는 2017, 2018시즌에는 일본 오키나와로 스프링캠프를 다녀왔고 미국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미국인데 시차에 금방 적응한 것은 물론 음식도 잘 맞더라고요!

그곳에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강성철 오전 8시 30분쯤 경기장에 도착해 훈련장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촬영하고,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고, 취재 장비들을 챙깁니다. 이후 준비 운동, 훈련하는 모습 등을 취재하고, 중간 중간 인터뷰를 합니다. 취재가 끝나면 숙소에서 영상 자료를 백업하고, 그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립니다.

이항 그리고 취재 틈틈이 팬 분들이 궁금해 할 영상들을 온라인 콘텐츠용으로 촬영했어요. 감독님 인터뷰는 특별히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강성철 프로야구는 경기 시간이 길고, 매일 펼쳐지는 종목이다 보니 중계 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방송을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한 내용들이 추후에 중계방송에서 양념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항 맞아요.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재미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캠프 이야기를 전할 때 제 멘트에 생동감이 고스란히 묻어날 것 같습니다.

스프링캠프 취재의 백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성철 아무래도 선수 및 감독, 코칭스태프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시즌 때보다 심적으로 여유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안 그랬던 분들이 '투 머지 토크(too much talker)'가 되기도 합니다. 하하.

이항 그리고 팀에 합류한 새로운 얼굴들을 미리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또, 선수들이 시합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 이외에 다양한 면모들도 알 수 있습니다.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 분위기는 어땠나요?

강성철 매년 취재를 가며 캠프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훈련량보다는 선수들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훈련, 통솔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훈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년째 캠프 훈련량이 가장 적은 팀으로 정평이 나 있는 키움(前 넥센)만 하더라도 감독이 늘 피닉스 훈련장에 나오지만 선수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12시면 공식 훈련이 끝나고, 오후에는 자율 훈련을 합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모두 바뀌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NC 또한 오전에 공식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자율 훈련을 소화하고요.

이항 맞아요. 키움은 이제 우승이라는 목표를 깨내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부상에서 돌아온 최원태, 이정후 선수 또한 재활을 순조롭게 마쳐가고 있었어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NC는 선수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코칭스태프도 선수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단 분위기가 자유로워보였습니다. 물론 자유로움 안에서도 선수들 간의 경쟁이 느껴졌고요.

강성철 이강철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kt는 더 높은 곳으로의 비상을 위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선수들이 더 빨리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수 한 명 한 명 눈여겨보며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항 저는 투수 출신 이강철 감독이 투수진을 어떻게 운용할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두 명도 새로왔고 거기에 샌디 게레로 타격 코치까지, 정말 파격적인 변화를 주었는데요. 두 명의 투수들이 어느 정도의 승수를 가져갈지, 또 복귀한 이대은 선수가 팀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줄지도 궁금합니다.

강성철 아, 세 팀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취재를 온 저희 KBS N SPORTS 야구 취재팀을 무척이나 반겨주었다는 겁니다. 하하.

KBS N 해설위원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봉중근 위원도 스프링캠프에 동행했는데요. 세 분의 케미는 어땠나요?

이항 사실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함께 한 분들과 호흡이 좋아서 취재하는 동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봉중근 해설위원과는 거의 초면이었는데, 매너도 좋고 친근감이었던 분이었는데, 참 긍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강성철 일단 이항 아나운서는 취재 내내 활력스런 역할을 해주었어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선배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참 대단했습니다. 봉중근 해설위원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각종 '꿀팁'을 대방출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는 이 빵이 맛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좋다 등...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취재를 순조롭게 도와주셨습니다. 맛집도 많이 아시고요.

말씀만 들어도 훈훈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성철 스프링캠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취재를

가는 방송사, 바로 KBS N입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이라는 슬로건처럼 언제나 프로야구의 시작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이는 KBS N SPORTS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중계 노하우에 새로움을 더한 KBS N SPORTS 프로야구 중계가 2019년 야구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 하는 KBS N SPORTS, 파이팅!

이항 올 시즌 KBS N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프로야구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봉중근 해설위원부터 든든한 이용철 해설위원, 고집스러운 정도로 항상 열심히 하는 이호근 캐스터부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좌측 담장' 권성욱 캐스터! 그리고 예리함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 오호주 아나운서, 모든 것을 보여줄 각오가 된 제 동기 조은지 아나운서까지! 구원만 봐도 KBS N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동안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진심을 말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야구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처럼 저도 알수록 더 매력적인 아나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MC를 맡은 <아이러브베이스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생생하고 진심을 담은 중계를 약속드립니다! KBS N 해설위원으로 1회 초에 마운드에 오르다

지난 2월 14일 열린 '2019 KBS·KBS N 프로그램 설명회'. 이 자리에서 올해 KBS N을 빛낼 인물로 봉중근 해설위원이 단상에 올랐다. 유니폼 대신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고, 클러브 대신 마이크를 든 그.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봉중근 해설위원은 KBS N에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하게 된 소감과 포부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난 뒤 그와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LG 트윈스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1등을
KBS N SPORTS 야구 중계 시청률 1등으로
꼭 이루겠습니다!
퇴근 후 야구 중계를 보며 마시는 맥주 같은
'통쾌한 해설'을 기대해주세요!”

국민 영웅 '봉의사'의 아쉬운 은퇴

며칠 전,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 투싼으로 스프링캠프 취재를 다녀왔다는 봉중근 해설위원. 선수가 아닌 해설위원으로서 스프링캠프에 동행한 소감이 문득 궁금해졌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하는 NC, kt, 키움 등 3개 구단을 취재하고 왔어요. 현역에 있을 때 '다른 팀은 어떻게 훈련을 할까?' 내심 궁금했었는데 말이에요(웃음). 각 구단별로 훈련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는데, 3개 구단 모두에게서 우승을 향한 열의가 느껴져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취재 덕분에 3개 구단 모자를 다 써보는, 재밌는 경험도 하네요.”

스프링캠프 취재가 스스로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고 하는 그의 눈이 반짝였다.

1세대 메이저리거 출신인 그는 국내로 돌아와 2007년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그를 전국구 스타로 올려놓았다. 당시 스즈키 이치로를 1루에 공공 묶는 날카로운 견제로 큰 화제가 된 것. 단숨에 '일본 천적'으로 떠오르면서 안중근 의사를 빗댄 '봉의사'라는 별명이 그에게 생겼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야구 스타였기에 작년 9월 그의 은퇴는 더욱 아쉬움이 컸다. 마운드와 작별을 고한 건 오랜 어깨부상 탓이었다. 2017년 6월 어깨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재활에 매달렸으나 예전 몸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그는 도리어 담담하고 씩씩하게 말했다. 12년간 몸담은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다.



직구처럼 묵직한 해설 기대해주세요!

그는 은퇴 후 KBS N 해설위원으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한다. 해설위원로서는 이제 막 1회 초 마운드에 오른 셈이다.

“10개 구단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외에도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흔히 '다르다', '틀리다'를 혼동하는데 해설을 하려면 두 단어의 뜻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운전할 때도 입에 펜을 물고 '아에이오우' 발성 연습을 하고요. 하하! 발음이나 표준어 관련해서는 강성철 아나운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밖에 이광용 아나운서, 선배 안치용·장성호 해설위원도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집에서도 연습은 계속된다. 한번은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해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실전처럼 진지하게 해설에 임하고 있는 그에게 아들이 다가와 “아빠, 지금 뭐해?”라고 묻기도 했단다.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던 그는 이제 경기장 밖에서 그라운드를 지켜본다. 유니폼 대신 멋진 슈트를 입고, 클러브 대신 마이크를 들고서. 그리고 직구처럼 묵직한 '촌철살인' 해설로 야구팬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LG 트윈스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1등을 KBS N SPORTS 야구 중계 시청률 1등으로 꼭 이루겠습니다! 퇴근 후 야구 중계를 보며 마시는 맥주 같은 '통쾌한 해설'을 기대해주세요!”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다! 2019 KBO 리그에서 달라지는 것은?

해외로 스프링캠프를 다녀온 10개 구단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시즌 동안 2019 KBO 리그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타고투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반발계수가 조정되었고, 부상 방지를 위한 룰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10개 구단들은 선수 및 감독 교체를 강행하며 저마다의 변화를 도모했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대로 안다면 프로야구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2019 KBO 리그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자.

글. 월간 매거진 <더그아웃> 김호연 에디터



01

공인구 반발계수의 변화... 타고투저의 시대 끝날까?

KBO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존 KBO 리그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 범위는 0.4134~0.4374였다. 하지만 2019년 시즌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 범위는 0.4034~0.4234이다. 최소값으로 비교했을 때 반발계수 0.01이 감소하면서 평균 비거리도 약 2m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O가 공인구의 반발계수에 손을 댄 이유는 리그에 만연해 있는 타고투저 현상을 완화하고,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반발계수는 타구의 비거리와 직결된다. 반발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간다. 지난해 KBO리그에서는 '역대급' 타고투저 시즌이 펼쳐졌다. 지난해 정규리그 720경기에서 쏟아진 홈런은 무려 1,756개에 달했다. SK, 롯데, kt 등 3개 구단이 팀 홈런 200개를 넘겼고, 사상 최초로 40홈런 타자 5명(김재환, 제이미 로맥, 박병호, 멜 로하스 주니어, 한동민)이 나왔다. 타고투저 현상 속에 대한민국 야구는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갔다. 2010년대 들어 두 번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고 인천과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땀에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다. 이에 KBO는 공인구 규격 변경을 통해 타고투저 완화는 물론 내년 프리미어12,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를 노릴 예정이다.



02

부상 방지 위한 각종 룰 신설

공인구 반발계수 하향 조정 말고도 KBO는 2019 시즌부터 새로운 규칙을 신설했다. 신설된 이 규칙의 정식 명칭은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이다. 그간 주자가 더블 플레이를 막기 위해 상대 팀 야수에게 일삼던 거친 플레이를 막고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2015년 미국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활약하던 강정호가 상대 주자의 거친 슬라이딩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시즌을 마감한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해 MLB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선 뉴욕 메츠의 유격수 루벤 테하다가 LA 다저스 체이스 어틀리의 과격한 슬라이딩에 종아리뼈가 부러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BO에 따르면 주자가 더블 플레이 성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슬라이딩이 아닌 방식으로 야수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심판원은 해당 주자에게 방해를 선고한다. 심판원이 주자가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주자가 이미 아웃된 경우엔 수비 측이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했던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비디오 판독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설된 규정으로 선수들은 더욱 안전한 경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03

10개 구단 감독 중 4명이 새롭게 지휘봉 잡아

이밖에도 그라운드 안에서의 변화도 있다. 前 LG 트윈스 양상문 단장이 롯데 사령탑으로 선임된 데 이어 前 SK 와이번스 영경업 단장이 SK 감독으로 낙점됐다. KBO 리그에서 감독-단장-감독 코스를 밟은 인물은 두 사람뿐이다. kt의 2군 타격 코치였던 이송용은 2019년 kt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NC는 이동욱 수비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으며, kt는 이강철 두산 수석코치를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감독 10명에게는 모두 '우승' 혹은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을 터. 이들이 만들어 나갈 드라마를 다 같이 지켜보자. 이밖에도 '공룡 군단의 새 동지' 창원NC파크가 올 시즌 문을 연다. 특급 포수 양의지를 FA로 영입한 NC는 신구장 효과를 톡톡히 노리겠다는 의지다. 새롭게 바뀌는 KBO 리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극도의 타고투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각 구단 감독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지는 모두 경기에서 나타난다. 변화하는 2019 KBO 리그가 팬들에게 더욱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글로벌 韓·中 뷰티 신(神)들의 도전 리얼 뷰티를 팝니다! 〈한채영 부티크〉

‘워너비 뷰티 스타’ 배우 한채영이 K-Beauty 부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한채영 부티크〉를 연다! 여기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SNS 스타 ‘왕홍(网红)’이 동업자로, 최근 뷰티 아이콘으로 떠오른 개그우먼 홍현희가 〈한채영 부티크〉의 직원으로 합세해 뷰티 소비자들의 리얼 뷰티 욕망을 채워줄 예정이다. KBS W 채널에서 아낌차게 준비한 리얼 뷰티 프로그램 〈한채영 부티크〉를 소개한다.



개그우먼 홍현희

고우나



장역문

리웬헨

▶
〈한채영 부티크〉
KBS W 매주(금) 밤 9시 50분 방송

개일 뷰티상식의 메카 〈한채영 부티크〉로 놀러오세요

K-Beauty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이 K-Beauty 붐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제품 종류와 과도한 정보로 오히려 소비를 주저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 '뷰티 아이콘' 배우 한채영이 KBS W 〈한채영 부티크〉를 통해 소비자들 원하는 뷰티 정보를 낱알이 소개할 예정이다. 뷰티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바 있는 배우 한채영은 〈한채영 부티크〉를 통해 화장품을 리얼하게 리뷰하고 냉철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겸비하여 외국인 고객까지 끌어들이 계획이라고. 〈한채영 부티크〉의 사장이자 설계사로 어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릴지 기대해보자.

중국의 SNS 스타 '왕홍(网红)'은 부티크의 동업자로 나선다. 왕홍은 중국의 파워블로거를 일컫는 말로, 파급력이 대단해 '걸어다니는 기업'으로도 불린다. 중국에서 각각 최고의 화장품 판매 여왕, 리뷰의 신으로 불리는 리웬헨과 고우나가 동업자로 맹활약할 예정이다. 중국의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뷰티계의 엄친아인 장역문은 부티크의 청일점으로 남성 뷰티를 책임진다.

사기 수준의 메이크업 실력으로 화제가 된 개그우먼 홍현희는 부티크의 직원으로 합류해 본인이 직접 테스트에 나서는 등 솔직한 돌직구 리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의 개일 생활 뷰티상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100% 소비자 입장에서 리얼한 사용 후기는 물론, 제대로 된 사용 방법까지 아낌없는 뷰티 정보를 대방출 할 〈한채영 부티크〉는 3월 8일 밤 9시 50분 KBS W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2019 KBS · KBS N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KBS N이 지난 2월 14일 강남구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2019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KBS · KBS N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광고주 임원 및 실무자 200여 명을 비롯한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KBS 양승동 사장, KBS N 박정미 사장 외 KBS · KBS N 임원들도 자리를 빛냈다. KBS 박은영 아나운서의 멘트에 이어 가수 알리의 축하 무대로 행사의 막이 성대하게 올랐고, 올해를 빛낼 KBS · KBS N 신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홍보 영상이 공개되었다. KBS N 프로그램으로는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연애의 참견2〉, 〈코인 법률방2〉, 〈무엇이든 물어보살〉, 〈쇼핑의 참견〉이 소개되었고, KBS N SPORTS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담은 〈2019 KBO 리그〉, 〈ATP Tour〉 중계를 약속했다.

KBS N 한경천 편성제작본부장은 "KBS N 예능 프로그램의 강점은 재미와 중독성"이라며 "신규 자체 제작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쇼핑의 참견〉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KBS N 박정미 사장은 "KBS N은 TV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유연한 IMC(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젊고, 신선하고, 트렌디하고,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장의 축배 제의 및 만찬으로 마무리되었다. 2019년에는 KBS · KBS N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줄지 기대해본다.

KBS N SNS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KBS N이 다양한 SNS(인스타그램 · 유튜브 ·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는 가운데,
KBS Joy 예능 알짜배기 영상과 다양한 이벤트로 피드가 날로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KBS N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면 KBS N SNS 삼총사를 찾아주세요! 팔로우와 구독, 좋아요는 필수!

Instagram

카드뉴스 및 1분 영상으로 만나보는 KBS Joy 예능! 인스타그램에 공지되는 다양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네임태그: [KBSN.OFFICIAL](#)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KBS N 프로그램 무료 시청은 물론 KBS Joy 대표 예능과 KBS N의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다시보기와 스포츠 하이라이트도 OK!

유튜브 QR코드

facebook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KBS Joy 대표 예능과 KBS N의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를 페이스북에서도 감상하세요! 카드뉴스 및 1분 영상으로 만나보는 KBS Joy 예능과 페이스북에 공지되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페이스북 QR코드

KBS N 매거진 종료 안내

매월 KBS N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해온 <KBS N 매거진>이 2019년 3월호를 끝으로 발행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KBS N 매거진>은 ▲<연애의 참견2>, <차트를 달리는 남자>, <코인 법률방2> 등 KBS N 자체제작 프로그램 촬영 현장 ▲2018 KBO 리그 등 KBS N SPORTS 제작 · 중계 현장 ▲KBS N 프로그램 생방송 현장 등 KBS N 안팎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N 제작진 및 아나운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친밀한 KBS N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간 <KBS N 매거진>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KBS N에게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KBS N 매거진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